



전주사랑·전주마음

2002 제 19회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글짓기 입상작품 모음집

전 주 문 화 원
문화시민운동전주시협의회



제 19회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글짓기 입상작품집

전주사랑 · 전주마음

인 쇄 : 2002년 5월 15일

발 행 : 2002년 5월 20일

발행인 : 金光鎬

편집인 : 宋榮相

發行 : 全州文化院

561-812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35

한안과 B/D 5층 ☎ · FAX (063) 288-7500

<http://www.jjmhy.or.kr> E-mail: cjmhy7500@yahoo.co.kr

印刷 : 파피루스

☎ (063) 277-7676

〈非賣品〉



비빔밥, 온고을에서 온세계로

전주신성초등학교
5학년 1반 김민주
엄마 최지희

맑은 물 넓은 평야
좋은 쌀로
고슬고슬 반질반질
윤기나는 밥을지어

중국사람
일본사람
세계인이 같이 먹는
전주 비빔밥

무주, 진안, 장수
깊은 산 정기받고
자란 나물들을
고소고소 참기름에
톡톡튀는 깨소금에
오물조물 양념하여

매콤달콤 순창 고추장으로
술술 비벼먹는
전주 비빔밥
미국사람



비빔밥

전주전라초등학교
4학년 2반 이성민
엄마 소병순

콩나물, 버섯, 쇠고기
갓은 나물
영양만점 비빔밥

그래도 맛있다고
웃음 바다 되었네.

손가락을 들기도 전
침이 '꿀꺽' 넘어가네.

빨간 고추장 넣고,
쓱쓱 비벼서

용기종기 모여 앉아
'후후' 먹으면

매콤하고 화끈한 맛
눈물이 찢끔



비빔밥

전주북일초등학교
1학년 5반 김하늘
엄마 정혜순

파아란 호박, 갈색 고사리, 우리집의 자랑이요,
하이얀 도라지, 황백 지단, 전주의 자랑이요,
노랑머리 콩나물, 쇠고기 볶음, 세계의 자랑이지요.
다사미, 미나리, 약고추장...

고슬고슬 하얀 밥 위에
해바라기처럼 돌려 담으시고,

“하늘아, 밥 먹어야지.”

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

나도 모르게 침이 꼴깍.

엄마의 냄새가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비빔밥.



비빔밥

전주전라초등학교
3학년 2반 최혜경
엄마 유옥희

전주의
비빔밥을
먹어보세요
맛있는
비빔밥을
멀리 알려요
세계
사람들이
눈물소리 모두 다
비빔밥 먹고
잊어요
너도 나도
우리 전주의

비빔밥을 먹어요

2002년

전주 월드컵에 오시면

꼭 드시고 가세요



요리소와 비빔밥

전주송북초등학교
4학년 4반 이선경
엄마 유영순

전주송북초등학교
4학년 4반 이선경
엄마 유영순

커다랗고 동그랗고
옹뚱한 그릇에
모락모락 김 오르는
하얀 쌀밥에
콩나물무침, 상추무침, 고사리나물.....
온갖나물 한곳에 모여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뒤적뒤적

우리 전주 대표하느
매콤한 비빔밥

환상적인 입맛에
우리 전주 찾는 많은 사람들
콧등에 맺힌 땀방울
오래오래 간직하며
다시 찾을 내 고장



비빔밥

도봉초등학교
3학년 5반
송금미

전주양지초등학교
3학년 5반 고한빛
엄마 송금미

맛있는 비빔밥

맛있는 비빔밥

비빔밥은 요술쟁이

비빔밥은 요술쟁이

여러가지 맛을 내지요

여러가지 맛을 내지요

맛있는 비빔밥

맛있는 비빔밥

비빔밥은 무지개

비빔밥은 무지개

알록달록 색깔도 여러가지지요

알록달록 색깔도 여러가지지요

맛있는 비빔밥

맛있는 비빔밥

비빔밥은 웃음꽃

비빔밥은 웃음꽃

우리가족 모두 둘러앉아

우리가족 모두 둘러앉아

웃으면서 먹지요

웃으면서 먹지요



비빔밥과 월드컵

전주양지초등학교
3학년 1반 김경희
엄마 박명숙

우리 전주에는
정말 자랑스런 음식이 있습니다

맛있는 나물들과
빨간 고추장을 넣고 비비는 비빔밥
영양가도 정말 많대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월드컵 덕분에 세계인이
전주의 자랑인 비빔밥을 먹을 수 있게 돼 정말정말 기뻐요

월드컵도 우리 국민의 바램대로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전주시 파이팅! 월드컵 파이팅!



비빔밥

전주삼천남초등학교
3학년 1반 조윤서
엄마 오유숙

조그마한 웅덩이 속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인가 했더니

비벼비벼 비빔밥

모래알 같은 밥알들이

갈갈대며 놀고 있고

고사리와 시금치가

그네 타며 시합하네

꼭다리 콩나물이

끼워달라 노래하고

온갖 색깔 나물들이

동굴 속을 탐험하네

빨간 모자 씌워주니

순식간에 빨간 세상

애앵애앵

불자동차 불을 끄러 달려오고

너도 나도 친구되어

신나는 배 속 여행



내가 최고야(비빔밥)

전주교대부설초등학교
3학년 1반 진실로
엄마 배은숙

아마 내가 제일 맛있을 걸

아니야, 내가 더 맛있어

비빔밥속 친구들이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으시댄다

날씬한 몸매와 시원한 맛을

자랑하는 콩나물

나도 날씬하다고 대드는 고사리

둥그랗고 예쁜 내가 최고라는 계란

푸르른 맛을 자랑하는 시금치

부끄러워 얼굴만 빨개진 당근

뭐니뭐니 해도 비빔밥엔

내가 대장이라고 큰소리치는

하얀 쌀밥

애들아, 너희들 모두 최고야

너희들은 우리 전주의 자랑이야

비빔밥 속 친구들

모두모두 손잡고 사이좋은

친구되었네



재미있는 비빔밥

전주북일초등학교
2학년 1반 신성준
엄마 박진복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전주는
맛의 고장 예절의 도시에요

전주를 대표하는 비빔밥
맛이 있고 호호하면서
비벼먹는 비빔밥

뜨거운 돌그릇에
오색나물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외국사람도 우리 비빔밥을 보면
깜짝 놀랄거야

뜨거운 돌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보면
빨리 비벼먹고 싶다
여러 나물이 한데 모여

맛있는 밥이 되다니
참 재미있는 음식이다

엄마는 요리사
아빠는 비빔박사
나는 요리사 도우미

외국 사람들도 우리 비빔밥을
맛있게 먹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고장에서 열리는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끝나길



콩나물 국밥

전주서문초등학교
2학년 6반 전다희
엄마 여연숙

군침도는 콩나물국밥
먹고 먹고 또 먹어도 생각나는
콩나물국밥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먹고
또 먹고 싶어요
아빠에게 떼어서 먹은 달콤한
콩나물국밥
바라보기만 해도 맛있게 보이는
콩나물국밥
보글보글 지글지글 맛있는
콩나물국밥
뜨거워 뜨거워 호호불어
입김을 불어 마술이 된
맛있는 콩나물국밥



비빔밥

전주북일초등학교
2학년 2반 조수현
엄마 정보은

며칠전 TV에서 나는 무척이나 흥미로운 방송을 보았습니다. 일본의 한 도시를 소개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대표적인 음식과 관광할 곳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콩을 발효시켜 먹는 것은 우리나라의 청국장과 비슷했습니다. 온천도 소개를 했고 깨끗한 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시민도 나왔습니다.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랑할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맛있는 것도, 가보면 좋은 관광지도 우리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도 비빔밥이 제일 생각났습니다. 내 사촌동생 친구의 집은 전주에서 제일 유명한 비빔밥 전문 식당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가기도 했어요. 여러가지 야채들을 가지고 맛있는 밥으로 비벼 먹을 수 있게 한 음식이에요. 야채가 몸 건강에 좋다는 것을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야채를 맛있게 맛을 내어 나와 같이 야채를 싫어하는 어린이도 투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만든 음식이니 얼마나 훌륭한가요? 우리 고모는 부천에 살고 있는데 전주에 오면 비빔밥을 먹고 싶어합니다. 정말 맛있어 하고 먹고 난 후에도 감탄을 하지요. 전주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좋겠다고.

난 그동안 내 주위에 이 모든 훌륭한 것들을 너무도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냥 지나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우리 전주의 자랑거리인지를 너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한지, 부채, 전통이 느껴지는 한옥, 판소리, 친절한 사람들. 너무 많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번 5월에 열리는 월드컵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주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나의 바램입니다.



전주의 자랑 비빔밥

전주덕진초등학교
2학년 2반 최유린
엄마 김춘자

며칠 전 프랑스 파리에 계신 외삼촌과 외숙모가 전주에 있는 우리집에 오셨다. 나는 멀리 계신 외삼촌, 외숙모를 보게 되서 정말 반가웠다.

아빠랑 엄마와 함께 오랜만에 오신 외삼촌, 외숙모를 모시고 동물원과 새롭게 지은 월드컵 경기장을 구경했다. 깨끗하고 멋지게 지어진 경기장을 보면서 나는 생각해 보았다. 세계적인 경기를 여기 우리 전주에서 펼쳐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다.

우리 식구는 구경을 하고 나니 배가 고팠다. 나는 “아빠, 우리요 맛있는 점심 사주세요.” 하고 나는 말했다. 그러자 삼촌께서 전주의 전통음식인 비빔밥을 먹어 보자고 말씀하셨다.

우리 가족은 한국관이란 비빔밥 전문점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비빔밥 한 그릇을 맛있게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잡수셨다. 그리고 외숙모께서 말씀하셨다.

“전주 비빔밥은 정말로 자랑할만 하네요.” 라고 말씀하셨다.

옆에 계신 아빠가 말씀하셨다.

“전주 비빔밥 더 맛있고 특이한 맛을 조금 더 개발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을 수 있을 텐데…….” 하셨다. 외삼촌께서는 전주 비빔밥이 파리에 가면 먹고 싶은 생각이 날거라고 하셨다.

나는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내가 살고 있는 전주에서 세계 축구경기가 열리고 세계 여러 나라 외국사람들이 오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다. 외국사람들이 우리 전주 비빔밥을 먹고 외삼촌처럼 맛있다고 생각할까? 하고 생각했다.

세계 여러 외국인들이 와서 전주 전통적인 음식 비빔밥을 먹고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음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파리에서 오신 외삼촌과 외숙모는 파리로 다시 가셨다. 삼촌이랑 월드컵 축구를 하러 온 외국인들 모두 모두 전주 비빔밥을 오래도록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전주 전통 비빔밥 파이팅! 비빔밥 파이팅!

전주의 전통음식 비빔밥으로 세계 모든 외국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우리 전주의 맛을 보세요

전주우전초등학교

3학년 2반 남성호

엄마 윤미경

우리 전주에서 세계인의 축구 잔치인 월드컵이 열린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전주를 찾아올 텐데 그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전주에서의 멋진 추억들을 기억하게 해 주고 싶다.

우리 전주는 자랑거리가 많은 도시다.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비빔밥이 유명하다. 많은 야채를 밥 위에 달걀과 함께 놓고 고추장에 쓱쓱 비벼 먹는 비빔밥은 외국인의 입맛에도 딱 맞을 것이다.

조그맣고 물도 없는 서양 배와는 달리 물이 많고 단맛이 풍부한 전주 배는 정말 세계적인 과일이다. 외국인들이 그 맛을 보면 다시 전주를 오고 싶어할 것이다.

외국인들은 차로 대부분 커피를 마시지만 건강에 좋은 우리 고유의 많은 차들, 예를 들어 생강차, 울무차, 칙차, 유자차, 모과차 등 여러 가지 차 맛을 볼 수 있다. 콩나물 국밥도 외국인들에게 좋은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 밖에도 먹을 거리가 많은 우리 전주. 외국인들 많이 많이 오셔서 전주 맛을 느끼며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어 다시 한번 맛의 고장인 우리 전주를 꼭 다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맛도 만점 영양도 만점 비빔밥

전주송북초등학교

3학년 1반 유태식

엄마 이상희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 전주는 다른 도시에 비해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전통 음식도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맛도 만점이고 영양도 만점인 비빔밥에 대하여 쓰고 싶다. 전주하면 누구나 비빔밥이 유명하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전주를 방문했다면 한번쯤 먹고 싶어하는 음식 중의 한가지일 것이다.

비빔밥이 왜 좋은가? 이 글을 쓰면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나물 반찬들,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나물을 따로 따로 접시에 담아서 식탁에 내놓으면 밥 한 공기 먹는 동안 아마도 한번도 젓가락이 가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나물들은 따뜻한 밥 위에 얹어서 고추장과 함께 비벼서 먹게 되면 밥, 고추장 여러가지 나물이 어우러지면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맛을 볼 수 있다. 이런 비빔밥은 영양가도 만점이고 맛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다른 고장에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일등 상품 비빔밥을 우리 고장 전주에서 월드컵을 맞이하여 전주를 찾는 손님들에게 한번쯤 맛을 보였으면 좋겠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옛말이 있다. 이렇듯 음식 한 가지라도 정성을 들여 만들어 손님들에게 내놓는다면 누구라도 한번쯤 더 먹고 싶다.

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비빔밥을 먹기 위해 다른 고장에서 온 손님뿐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 나라를 찾아온 손님들도 비빔밥을 먹기 위해 작은 전통의 도시 전주를 찾게 되면 이것이 바로 애국심을 발휘하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된다.

전주 비빔밥 파이팅!



맛의 고장 전주로 오세요

전주완산서초등학교

6학년 2반 이나영

엄마 오은자

“안녕하세요?”

옛부터 멋과 맛의 고장으로 불리운다는 한국 전통 문화의 도시 전주, 풍부한 인심만큼이나 풍성하고 맛깔스런 음식으로 손꼽히는 도시 전주에 대해 나영이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맛으로 승부를 한다는 콩나물국밥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콩나물국밥은 미리 간수로 얼추 삶아 놓은 콩나물을 질박한 떡배기에 밥과 함께 나눠 담아 간수를 부어 숯불 위에서 1인분씩 따로 끓여낸다. 김치나 깍두기와 함께 파, 깨소금, 고춧가루 등 갖은 양념이 들어 가고 쇠고기자장, 생 달걀 등이 웃기로 얹어진다. 조리된 국밥에다 각자의 식성에 따라 새우젓으로 적당히 간을 맞춘 다음 다시 숭숭 썬 파와 깨소금등 양념을 재량껏 넣어 먹는다.

그 지극한 정성이 필요한 전주비빔밥은 얼핏 보기에 매우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조리 과정이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밥만 하더라도 그냥 보통 밥이 아니다. 닭 삶은 물과 암소 등심 삶은 물이 혼합된 국물로 지은 고두밥이기 때문에 그만큼 맛이 좋고 영양도 풍부하다고 한다. 비빔밥의

주재료로는 콩나물, 녹두묵, 찹쌀고추장, 육회(또는 육회볶음), 미나리, 참기름, 달걀등이 있고 부재료로는 깨소금, 마늘, 후추, 시금치, 고사리, 숙주나물, 취나물, 애호박볶음, 무생채, 오이채, 당근채, 밤채, 송이 또는 표고버섯, 쑥갓, 상추, 김, 잣, 은행 등이 있으며 계절에 따라 약간씩 종류를 달리한다. 비빔밥은 갖가지 주재료와 부재료를 차례로 넣어 비벼 먹는 전주 비빔밥은 그래서 맛이나 멋뿐만 아니라 넉넉한 인심을 동시에 먹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찾는 이들에게 더욱 인상이 깊을 것이다.

대중식사의 성격을 가진 한정식은 전주가 자랑하는 팔미 또는 십미의 재료가 고루 배합된 열두세 가지의 기본반찬 위에 대여섯 가지의 별찬이 더해진다.

우와 맛있겠다.

오모加里탕은 미나리, 쑥갓, 상추 등 소채류와 당면을 넣고 갖은 양념을 하여 팔팔 끓여낸다. 얼큰하면서도 단백한 국물과 양념맛이 잘 스며든 민물고기의 보드라운 육질과 당면 가닥들이 입맛을 잡아 끌기에 손색이 없는 일품요리다. 여기까지의 맛의 세상을 잘 둘러 보셨나요?

정말 읽기만 해도 꿀꺽꿀꺽 넘어가는군요. 이제는 우리의 전통 한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세계적으로 질이 좋은 닥나무로 제조한 전주 한지는 가장 질기면서 윤택이 아름답고 보존성과 흡수성이 가장 뛰어나다. 한지는 닥나무껍질, 산닥무껍질, 뽕나무껍질 등과 딱풀, 화공약품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다. 제조과정으로 닥채취 및 닥무지, 닥삶기, 닥씻기 및 씨우기, 티 고르기, 두드리기, 원료 넣기, 종이 뜨기, 물빼기, 말리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친 지면을 반드럽게 다듬는 도침 등의 단계를 차례로 거친 끝에 한 장의 한지가 완성된다.

이제 나영이와 테마여행시간인데요

1. 경기전은 사적 제339호로 지정 보호 받고 있는 경기전은 조선 왕주를 개창한 전주 이씨의 발상지라는 사실을 경하하기 위해 건립된 전각이다.

2. 이목대와 오목대는 1974년 지방기념물 제16호로 함께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3. 객사는 오랜 세월을 걸쳐 전라도 전 지역을 총괄해 나온 명실공히 호남의 수부로서의 위엄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전주에 몇 밖에 남아 있지 않은 대표적인 건물로서 1975년에 보물 제553호로 지정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테마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우!와!

전주를 찾는 이에게 감탄을 연발하게 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주비빔밥과 특산물 합죽선은 전주를 상징하고 있다.

지금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래를 위해서라도 쓰레기 분리수거, 차레지키기, 질서 등을 실천하였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구경 온 사람들이 찾게 되고 쓰레기를 치운 사람도 즐거워진다. 또 외국인이 우리 나라를 좋게 보기 때문이다. 전주에 오면 아주 좋을 것이다

우리 전주 살기 좋은 전주로 구경한번 오세요.

2002 전주 월드컵 화이팅!!